

대학도서관 기반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

Explor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Library-Based Character Education: Finding from Universities in Region A

구 정 화 (Joung Hwa Koo)*

이 성 숙 (Sung Sook Lee)**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수요조사와 더불어 대학도서관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지역 대학생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조사결과, 대학생의 91%가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교육내용은 관계지향적 덕목을 배우기를 선호하였다. 또한 기존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그리고 사회참여 프로그램들을 인성교육과 가장 밀접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 운영방식 중 도서관 자체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 방법으로 서비스러닝, 토론 및 사례 중심의 운영을, 교육 후 평가방법으로는 자기성찰, 동료평가 및 관찰과 체크리스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서들의 인성교육 제공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서비스의 고도화 전략, 홍보방법, 이용자 특성과 요구에 맞는 세분화 전략 수립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both charact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and university library-based character education. Using a survey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178 students enrolled at universities in region A. The study found that 91% of students agreed on the necessity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context, and they demanded relational virtues as core contents. Also, the students perceived the university library's existing information-literacy instruction, reading education, and service learning programs as the activities most closely aligned with character education. Among delivery modes, the students most preferred regular library-administered programs. Moreover, they preferred instructional approaches such as service-learning, discussion, and case-based learning. They favored the methods of evaluation through self-reflection, peer-reviewed assessment, and observation with checklis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a shift in librarians' perceptions toward actively providing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strategies for advancing and upgrading related services, approaches to more effective promotion, and methods for developing segmentation strategies tailored to users' characteristics and needs.

키워드: 인성교육, 대학 인성교육, 대학도서관 인성교육, 요구조사, 대학도서관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ies,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Needs Assessment, University Libraries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oo@hnu.kr)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nfolee@c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5년 11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12월 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4): 81-108,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4.081>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핵심 역할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지식의 생산과 전수뿐 아니라, 학습자 즉 대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그 성과를 사회로 환류하는 것임을 환기시켜 준다. 특히, 현재 대학 캠퍼스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저작권, 표절·인용,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등 ‘정보윤리’에 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외국인 학생의 증가에 따른 배려와 상호존중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학습의 필요 또한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팀 기반 학습과 발표, 캡스톤 프로젝트형 수업이 강조되면서 소통·협업 역량과 책임감 등 인성의 핵심 가치라 불리는 덕목들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즉, 지금의 대학은 정보·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의 요구를 받고 있고,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전공지식 교육의 보완적 선택이 아닌 고등교육의 필수 교육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필요 앞에 서있다. 이런 까닭에 대학생들 또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성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김효선, 2025; 이종현, 2016; 지현

아, 2017; 지희진, 2013).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교과 중심의 단회성 프로그램 운영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지현아, 2017),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시하는 핵심가치 및 덕목은 있으나, 이를 초·중·고등학생인 아닌 대학생의 필요에 맞는 내용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떤 교수방법과 운영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관한 실증적 모델 제시는 충분하지 않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또한, 인성교육의 기획과 실행이 교육의 당위성에 근거하여 공급자(교육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 즉,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학습하고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요구조사에 기반으로 교육의 전 주기를 설계하고 운영한 사례는 희박하다. 물론, ‘인성교육 요구 및 인식’이라고 명명한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업 시행 이후 만족도 조사나 사후 평가를 통해 일부 환류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¹⁾ 교육내용과 방법, 운영, 제공 형식, 평가, 홍보(알림)라는 교육의 전 주기를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자(대학생)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인성교육 실행의 거점기관으로 ‘대학도서관’에 주목한다. 대학도서관은 그동안 정보서비스의 중요기능으로 정보윤리(예, 표절 및 인용방법 등)와 정보활용능력 및 문해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서

1) ‘인성교육의 인식 및 요구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총 21편으로 전체 ‘대학생 인성교육’이라는 연구의 1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효선, 2025). 그러나, 그 내용들은 사전 수요조사라기 보다는 교육자들이 개발한 인성교육을 시행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임이 확인되었다.

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또한, 독서·토론·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및 사회적 학습과 교양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학습공간과 정보자원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교육을 위한 간접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해 왔다. 그럼에도 대학도서관은 인성교육을 주도하기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및 공간제공이라는 보조적 역할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까닭에 대학도서관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기대·수요를 파악한 기초 조사 역시 선행연구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학 차원에서의 인성교육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파악하고 둘째,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 내용구성(교수·학습 방법, 운영 방식과 제공 형식(예, 교과·비교과, 온·오프라인, 개별·집단), 교육성과 평가와 홍보 및 참여 유도 전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을 무엇을·어떻게·어디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대학도서관 중심의 인성교육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에서의 인성교육과 대학도서관

2.1.1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인성’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성품 혹은 사

람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국립국어원, 2025)이다. 그러나 인성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학자들의 관점과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인성의 다양한 측면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 관계성 등을 결정짓는 역동적인 특성으로서, 생애적이면서도 후천적으로 획득되기도 하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특성들의 총체(이금만, 2011, 130),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품, 기질, 개성, 인격(지희진, 2013),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행동적 특성(현주, 201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양한 측면의 정의가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인성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 성품, 태도, 됨됨이, 성향, 기질, 행동의 특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인성은 자연발생적인 산물이 아닌, ‘교육’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속성으로 간주되면서 그 개념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어 발전되었다. ‘인성교육’의 개념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21065호), 인간의 내면적인 품성을 길러 도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성명희, 김은주, 2015)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도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이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을 “대학생이

인성을 갖춘 인재이자 전인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활동”으로 개념화하고, 본 연구를 위한 선이해로 전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대학생들은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과 수요를 지니고 있는지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1.2 인성교육의 구성요소

인성교육은 여러 교육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박성미와 허승희(2012)는 인성교육의 구성요소를 개인적 가치와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가치에는 자아확립, 긍정적인 생활태도, 심미적 소양, 도덕적 책임의식, 도덕적 판단력 등이 포함되며, 대인적 가치에는 타인 이해와 동정, 타인 용서와 관용,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 배려와 협력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가치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공동선의 추구, 세계 시민의식 등이 포함된다. 강선보 외(2008)는 관계성, 전인성, 도덕성, 생명성, 영성, 창의성, 민주시민성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조난심(2004)은 인성교육의 구성요소를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였고, 개인적 요소에는 생명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경애, 효도, 예절, 자기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 관용, 개방성, 사고의 유연성 등이, 사회적 요소에는 협동, 준법, 타인배려, 정의, 공동체 의식, 민족애, 인류애, 타문화 이해 등이 포함된다. 현주(2014)는 자기존중(자기존중, 자기효능), 성실(인내, 근면), 배려(타인이해, 친절), 책임(협동성, 규칙이행), 예의(효도, 공경), 자기조절(자기통제, 신중성), 정직(용기, 솔직성),

지혜(개방성, 의사결정능력), 정의(공정, 공평, 인권존중), 시민성(애국심, 타문화 이해, 세계시민의식)을 제시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덕목, 즉 구성요소를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으로 제시하였다(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21065호).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의미 해석 역시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정창우(2013)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언급된 구성요소를 체계화하고 국내·외 사례(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2가지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재정의하였다. 즉,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용기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성실은 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절제는 스스로의 욕구, 감정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효도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예절은 사람이 만든 질서에 따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알맞게 표현하는 것, 존중은 정중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배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책임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협동은 사회의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고, 준법은 기본생활규칙과 공중도덕, 법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약속과 의무 등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성향이고, 사회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고자 하는 항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 정창우(2013)가 재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및 덕목에 대한 선호를 탐색하고자 한다.

2.1.3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주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중 소양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관심 제고를 위해 대학 우수 인성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 대학 내 여러 소속 기관들은 협력해야 할 것이며, 대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선된 정보자원과 공간 및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 운영면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대학의 인성교육과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은 모기관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을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으로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의 의미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생들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및 체험기반 활동”으로서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문화체험, 협업 학습 공간 운영 등의 서비스를 통해 핵심 인성 요소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선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과 수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그리고 ‘대학도서관과 연계된 인성교육’이라는 대주제 아래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세 가지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 둘째, 독서(혹은 정보활용)를 매개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과 인성교육을 연결하여 진행된 연구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의 독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인성교육으로 향후 연결할 것을 제안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1) 대학에서의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2)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이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충함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가늠하고자 한다.

2.2.1 대학에서의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대학에서의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을 시도한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

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범주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독서 교육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폴 리콤프의 철학을 인성·시민교육에 적용하여, 대학에서 독서공동체를 구성하고, 인성교육 실천의 장을 제안한 연구(전중윤, 2015), 우리나라 독서 교육 연구 흐름과 방향성을 고찰하고 독서를 통한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조미숙, 2015), 인성 개발을 위한 창의적 독서활동 6단계를 논의한 연구(이만수, 2016)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 범주로는 인문고전처럼 특정 대상(작품)을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논의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인문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한 연구(김광식, 2020; 김대기, 2018; 도유미, 2015; 안순태, 2017; 윤정화, 2024; 이국환, 2017; 이원봉, 2017; 조혜경, 2017),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여 독서토론활동을 제안한 연구(윤유라, 이은주, 2020)가 있다. 또 다른 범주로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장애·비장애 대학생들에게 독서치료를 활용한 사회통합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이즌증감 증진과 사회적 거리감 감소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용수, 2012), 인성과 독서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독서교육의 방향성을 고찰한 연구(김수현, 2018), 대학에서 실시한 인성 함양을 위한 고전 읽기 강좌의 운영 특성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박현희, 2019)가 대표적이다.

2.2.2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대학도서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사서의 인식 연구(이성숙, 구정화, 2024)는 있지만, 대학

생의 대학도서관의 인성교육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학 인성교육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만족도를 다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김선주, 2016; 성명희, 김은주, 2015; 안지영, 연지영, 2021; 이경자 외, 2020; 이경진, 2022; 이기용, 조용태, 2016; 이종현, 2016; 지희진, 2013; 홍성화, 2015). 이 연구들에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내용, 개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이미 진행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성적, 봉사활동, 캠퍼스 활동의 참여 정도를 밝힌 연구(임광명 외, 2016)와 대학생, 졸업생, 인사담당자의 인식 차이 및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김경언, 2017)도 진행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학에서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특정 작품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의 사례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대학에서의 독서교육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학에서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중심이 아닌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또한, 대학에서의 대학생 인성교육의 요구 및 만족도 관련 인식조사가 다수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인식조사 연구들은 이미 만들어진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덕목인지, 내용인지, 방법인지에 관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인성교육의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인 대학생들이 인성교육의 어떤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요구가 있는지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조사범위와 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인성교육의 개념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규명하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기를 희망하는지를 파악하는 이른바, 수요조사를 수행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대학생의 수요를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여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및 대학도서관 기반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관련 선행연구(김선주, 2016; 성명희, 김은주, 2015; 이기용, 조용태, 2016; 이종현, 2016; 정진한 외, 2025; 지희진, 2013)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과 예시를 문항 설계에 적극 반영하였다. 설문 문항을 1차로 완성한 후, 대학생 2명, 대학도서관 사서 2명, 문헌정보학 연구자 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의 이해도, 응답 소요시간,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설문에 사용된 주요 핵심 개념인 ‘인성’,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합의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각 단어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제시하고 최종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²⁾. 설문 문항은 크게 5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인성교육의 내용(구성 요소)’,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교육방법 및 운영방안’,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며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고).

2) 각 단어의 조작적 정의 제시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된 정의들 즉, 인성, 인성교육,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한 내용을 활용하여 설문에 제시하였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

주제 구분	요소	문항수
1. 인구학적 특징	성별, 학년, 전공 계열, 종교, 인성교육 경험 유무	5
2.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인성교육 의미 - 대학 인성교육의 필요성	4
3. 인성교육 내용 구성	인성교육의 목표 내용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 덕목 12가지에 대한 중요(우선)도 (5점 척도)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 덕목 12가지에 대한 수요(요구)도 (5점 척도)	27
4.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	- 대학도서관 인성교육 경험 - 대학도서관 인성교육의 이점(효과) - 대학도서관 서비스와 인성교육 관련성 - 실감체험 기술 활용 여부	8
5. 교육방법 및 운영방안	- 교육방법 - 운영방법 - 교육방식(매체) - 평가방법 - 교육 홍보(알림) 방법	5

3.2 연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2025학년도 1학기(조사 시작 시점: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 등록된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 등을 포괄하여 각각의 목적과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각 대학의 유형에 따라 교육목표와 인성교육의 지향점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닌 '일반 4년제 대학'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인 '대학생'은 일반 4년제 대학의 정규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휴학생과 수료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과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이 다른 대학생들을 소개

하여 표집을 늘려가는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를 발굴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의 지리적 집중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A지역 대학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링크와 QR코드를 배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A지역은 다수의 국립 및 사립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표본 접근성이 높고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며, 대학 간의 규모 및 특성화와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현실적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6월 3일에서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총 135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7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서 제공하는 E-Stat 3.0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단일 또는 복수 응답형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인성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의 12가지 핵심가치·덕목 관련 문항과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항목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분포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단일 선택형 문항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 확률(p -value)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조사대상은 A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이 전체의 약 68.5%를 차지하여 남학생들(31.5%)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고(41.6%) 1학년(10.7%)이 가장 적었다.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전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공학계열(16.3%)이 가장 낮았다. 예·체능계열 및 의약계열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분야 전공 학생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교 유무에 있어서는 무교(66.3%)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를 가진 학생 중에는 개신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거치며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과반수(50% 이상)가 경험 자체가 없었다(〈표 2〉 참고).

4.2 인성교육의 의미와 내용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성교육이 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도 함께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을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 교육’(33.0%),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 교양교육’(29.6%),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가치관 교육’(17.8%)이자 ‘삶의 지혜를 넓힐 수 있는 교육’(9.7%)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인성교육을 ‘다양한 지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교육’(5.6%)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인지적 능력개발 중심보다는 정서적·가치지향적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91%가 동의하였다. 동의 이유 및 근거로는, 현재 ‘대학생들 사이에 이기주의적이고 공감 부족한 태도의 만연’(26.5%)으로 인해 ‘사회 나가기 전, 타인과의 소통과 협업의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28.4%)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은 지식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올바른 인격 형성이 부족하고, 전인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22.2%)하다는 당위성과 함께 ‘대학생 시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빈도	백분율
성별	남	56	31.5
	여	122	68.5
학년	1학년	19	10.7
	2학년	32	18.0
	3학년	74	41.6
	4학년	52	29.2
	기타(초과학기)	1	0.6
전공계열	인문계열	71	39.9
	사회계열(교육/사범계열 포함)	39	21.9
	자연계열	39	21.9
	공학계열	29	16.3
종교	무교	118	66.3
	기독교(개신교)	42	23.6
	천주교	7	3.9
	불교	10	5.6
	기타(예. 도교, 천도교 등)	1	0.6
인성교육 경험 유무	0회	93	52.3
	1-2회	58	32.6
	3-4회	15	8.4
	5회 이상	12	6.7

기는 가치관(인생관)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14.8%)이므로, 이 시기에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일부 학생들은 기존의 인성교육의 내용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진부했다고 인식하며,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학에서 공부와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이 별도로 필요하기에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에 반해, 응답자의 9.0%(16명)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인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형성되기에 교육으로 바꾸기 어렵다', '인성은 스스로의 실천과 사회경험과 판단

을 통해 기를 수 있다', '대학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곳이지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강의, 과제 취업 등으로 바쁜 대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은 부담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소수이긴 하나, 대학생 일부가 인성교육의 교육적 개입 가능성에 회의적이며 인성 혹은 인격형성을 개인의 자율적 성장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권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4.3 인성교육의 내용 구성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할 경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다각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인성의 개념적 정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인성이 좋다’ 혹은 ‘인성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곧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목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인성이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자신의 인성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75.3% (134명)의 학생이 스스로를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근거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절’을 갖춘 사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성을 대인관계 중심의 사회적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에 비해 ‘진정성과 정직성’ 그리고 ‘협력과 포용력’에 대한 내면적 혹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고려사항이었다(〈표 3〉 참고). 이는 대학생들이 인성을 윤리적 성품이나 조직 내 협력역량보다는, 대인관계에서의 예의와 정서적 공감의 실천으로 한정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반면, ‘자신의 인성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생(44명, 24.7%)의 판단 근거는, ‘책임 회피

의 성향: 내가 불리할 때 갈등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서’(47.7%), ‘감정: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어서’(22.7%), ‘공감 능력의 부족: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15.9%), ‘배려 부족: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어서’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일부 대학생이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 혹은 미성숙과 대인관계의 한계를 인성 결핍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 조절과 공감 부족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인성교육의 의미를 정서적 역량 혹은 공감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한편,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시하는 12가지 핵심가치(덕목) 모두를 대학 인성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그리고 중요하게 가르쳐져야 할 덕목’으로 인식하였으며, 모든 항목의 평균점수가 4점대 이상을 부여하였다.³⁾ 이는 대학생들이 인성교육의 주요 가치 전반을 폭넓게 긍정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인성이 좋다’고 자기 평가한 기준 및 근거

문항	빈도	백분율
존중과 예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기에	43	32.1
공감 능력: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기에	33	24.6
배려와 친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도와주려 하기에	20	14.9
책임감과 규범준수: 약속이나 시간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기에	16	11.9
자기성찰 능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13	9.7
협력과 포용력: 타인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에	5	3.7
진정성과 정직: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을 대하려 하기 때문에	4	3.0
계	134	100

3) 〈표 4〉과 〈표 5〉에 제시한 인성교육 구성요소, 즉 덕목과 덕목의 의미 제시는 성명희, 김은주(2015), 정창우(2013) 연구에서 제정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계 중심의 인성 덕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존중'과 '책임' 그리고 '예절'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개인적인 역량이자 덕목인 '지혜', '용기' 및 '효도' 등의 덕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표 4〉 참고). 이는 대학생들이 인성을 자기 내면의 성찰 혹은 전통적 윤리 가치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적 조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또

한 시사한다.

또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교육 수요 즉, 자신이 교육받고 싶은 인성 덕목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가치 영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대학생들이 가장 교육받고 싶은 덕목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의 영역인 '존중'과 '예절' 그리고 사회적 인성인 '협동' 부분에 대해 가르침을 받길 원하는 반면, 개인적인 덕목인 '용기', '효도', '지혜'와 관련된 덕목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다(〈표 5〉 참고).

〈표 4〉 인성교육진흥법 핵심 가치 중 “가르쳐져야 할” 덕목 (중요도)

영역	덕목	덕목의 의미	5	4	3	2	1	M	SD
A. 개인적 인성	지혜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66 (37.1%)	74 (41.6%)	32 (18.0%)	5 (2.8%)	1 (0.6%)	4.12	0.84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63 (35.4%)	80 (44.9%)	30 (16.9%)	4 (2.2%)	1 (0.6%)	4.12	0.80
	성실	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100 (56.2%)	61 (34.3%)	16 (9.0%)	1 (0.6%)	0 (0.0%)	4.46	0.68
	절제	스스로의 욕구, 감정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96 (53.9%)	61 (34.3%)	17 (9.6%)	2 (1.1%)	2 (1.1%)	4.39	0.79
	효도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71 (39.9%)	69 (38.8%)	32 (18.0%)	5 (2.8%)	1 (0.6%)	4.15	0.85
B. 타인 관계적 인성	예절	사람이 만든 질서에 따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알맞게 표현하는 것	114 (64.0%)	50 (28.1%)	11 (6.2%)	1 (0.6%)	2 (1.1%)	4.53	0.74
	존중	정중하고 사려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132 (74.2%)	35 (19.7%)	11 (6.2%)	0 (0.0%)	0 (0.0%)	4.68	0.58
	배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102 (57.3%)	52 (29.2%)	21 (11.8%)	3 (1.7%)	0 (0.0%)	4.42	0.76
	책임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124 (69.7%)	42 (23.6%)	11 (6.2%)	1 (0.6%)	0 (0.0%)	4.62	0.63
C. 사회적 인성	협동	사회의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	88 (49.4%)	72 (40.4%)	17 (9.6%)	1 (0.6%)	0 (0.0%)	4.39	0.68
	준법	기본생활규칙과 공중도덕, 법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약속과 의무 등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성향	102 (57.3%)	62 (34.8%)	12 (6.7%)	1 (0.6%)	1 (0.6%)	4.48	0.70
	사회 정의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고자 하는 항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	68 (38.2%)	84 (47.2%)	23 (12.9%)	2 (1.1%)	1 (0.6%)	4.21	0.75

〈표 5〉 인성교육진흥법 핵심 가치 중 “교육받고 싶은” 항목(수요도)

영역	덕목	덕목의 의미	5	4	3	2	1	M	SD
A. 개인적 인성	지혜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70 (39.3%)	62 (34.8%)	35 (19.7%)	7 (3.9%)	4 (2.2%)	4.05	0.97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65 (36.5%)	66 (37.1%)	31 (17.4%)	13 (7.3%)	3 (1.7%)	3.99	0.99
	성실	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75 (42.1%)	63 (35.4%)	33 (18.5%)	5 (2.8%)	2 (1.1%)	4.15	0.89
	절제	스스로의 욕구, 감정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102 (57.3%)	53 (29.8%)	20 (11.2%)	3 (1.7%)	0 (0.0%)	4.43	0.76
	효도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58 (32.6%)	50 (28.1%)	55 (30.9%)	11 (6.2%)	4 (2.2%)	3.83	1.03
B. 타인 관계적 인성	예절	사람이 만든 질서에 따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알맞게 표현하는 것	80 (44.9%)	63 (35.4%)	28 (15.7%)	4 (2.2%)	3 (1.7%)	4.20	0.90
	존중	정중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103 (57.9%)	56 (31.5%)	15 (8.4%)	3 (1.7%)	1 (0.6%)	4.44	0.76
	배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81 (45.5%)	70 (39.3%)	24 (13.5%)	2 (1.1%)	1 (0.6%)	4.28	0.78
	책임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95 (53.4%)	64 (36.0%)	18 (10.1%)	0 (0.0%)	1 (0.6%)	4.42	0.72
C. 사회적 인성	협동	사회의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	91 (51.1%)	58 (32.6%)	25 (14.0%)	2 (1.1%)	2 (1.1%)	4.31	0.84
	준법	기본생활규칙과 공중도덕, 법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약속과 의무 등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성향	75 (42.1%)	70 (39.3%)	27 (15.2%)	4 (2.2%)	2 (1.1%)	4.22	0.90
	사회 정의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고자 하는 향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	74 (41.6%)	64 (36.0%)	31 (17.4%)	6 (3.4%)	3 (1.7%)	4.12	0.93

이러한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은 인성의 개념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과 조화를 실천하는 즉, 관계적 역량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간주하며 이를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4.4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

대학생들의 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인성 관련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

도와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앞서, 먼저 ‘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선이해로 합의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즉, 대학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이란, “대학도서관이 대학생들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및 체험기반 활동”으로서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문화체험, 협업 학습 공간 운영 등의 서비스를 통해 핵심 인성 요소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대학 내 다른 부서가 아닌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이점(효과)으로 '접근성과 편리성(도서관은 대학의 중심 공간이고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접근성이 좋아 참여하기 편리할 것 같다)'(29.8%)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 및 참고문헌 활용 가능성'(24.2%)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외에도 도서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다른 학습 지원 서비스와 연계되어 전반적인 학습 경험이 풍부해질 것'(12.9%)이며, '학업과 연계된 인성교육이 가능해 실질적인 자기계발에 도움'(12.4%)이 되며, '전문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체계적인 인성교육'(11.8%)이 될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은 '신뢰도가 높아 참여의욕을 높여준다는 점'(7.9%)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대학도서관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인성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정보의 윤리적 사용(예, 표절 방지)에 대한 교육'(28.1%), '자기계발 및 인성 관련 도서 추천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예, 시간관리, 가치관 등)'(21.4%), '상황별(예, 인성과 학습을 통합할 수 있는) 자료 제공'(16.3%), '인성

관련 독서 토론 모임(책 읽기 클럽)'(9.6%), '사회연계 프로그램(서비스러닝)'(9.0%)이었다. 이는 기존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그리고 사회참여 프로그램들을 인성교육과 가장 밀접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바, 이들을 인성교육의 실질적 매개로 활용하여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수행할 때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 특정 서비스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3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인성교육 특강 및 강연 개최'에 가장 큰 기대감을 표했다. 둘째, '인성 관련 자료 구축에 기반한 활동들(예, 독서를 통한 명상 및 스트레스 관리, 독서를 통한 자기성찰 프로그램, 인성 관련 도서 및 자료구축 및 추천 서비스, 독서토론 모임)'로, 전통적인 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자료제공 및 독서활동 지원이 인성교육의 매개로 기대하고 있었다. 끝으로, '정보의 윤리적 사용(표절방지)에 대한 교육'(8.4%)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표 6>참고).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실감체험(XR)

<표 6> 대학도서관 기반 인성교육 수행 시 기대되는 서비스 유형

문항	빈도	백분율
다양한 인성교육 특강 및 강연	48	27.0
독서를 통한 명상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28	15.7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28	15.7
독서를 통한 자기성찰을 돕는 프로그램	26	14.6
인성 관련 도서 및 자료구축 및 추천서비스	23	12.9
인성교육 주제의 독서 토론 모임 운영	15	8.4
정보의 윤리적 사용(예, 표절방지)에 대한 교육	10	5.6
계	178	100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는 인성교육을 체험 중심 수업으로 확장할 가능성과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험 기반 인성교육을 서비스러닝 중심의 현장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AI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까지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 가운데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실감형 체험기술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여 수용도와 활용 의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유사한 비율로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방식이라 흥미로울 것'(25.3%)이며, '현실과 유사한 실제 상황을 경험'(16.3%)할 수 있고, '집중과 몰입도가 높아 태도 개선에 도움'(10.7%)이 되며, '간접 체험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10.1%)고 응답했다. 즉, 이들은 실감형 기술을 활용하면 학습이 체험 중심의 학습몰입과 감정이입이 강화되어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학생들은 '실감 체험이 너무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어 인성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19.7%)는 우려와 함께 '고가의 기술 장비와 시설의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렵다'(9.4%)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응답자가 86.5%로 확인된 반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4명(13.5%)은 주로 '인문학 또는 교양 특강'(48.5%), '인성 관련 독서토론'(24.2%), '공감 및 소통 능력 향상 워크숍'(9.1%), '독서기반 자기성찰 글쓰기'(6.1%), '도서관 봉사활동 연

계 프로그램'(3.0%)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도서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로는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및 봉사시간 인정'(19.4%), '도서관 내 광고를 보고 관심'(19.4%)이 생겼거나, '흥미로워 보여서'(16.7%)가 주된 이유였다. 또한, '자기성찰 또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13.9%)이 될 것 같아서 또는 '교수님 또는 학교의 추천'(13.9%)으로 혹은 '다른 수업과 연계된 프로그램'(5.6%)도 참여 동기로 제시되었다. 반면, 대학도서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도서관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소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47.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성교육 자체에 큰 관심이 없거나'(15.5%), '교육내용이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흥미를 가지지 못해서'(12.9%) 그리고 '소속 대학도서관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음'(7.3%)의 순으로 나타났다.

4.5 인성교육 수행방식과 평가방법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성명희, 김은주, 2015; 홍성화, 2015)에서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의 내용 자체보다는 교육방법과 평가방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예. 교육 방법의 다양화 요구, 평가 방식의 변화 요구, 체험 중심 혹은 사례 중심의 수업방식 요구, 수업 인원의 불만(축소), 교육시간의 부적절성 등). 이에 본 연구는 인성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교육방법과 학습 후 평가방식에 대한 수요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성명희, 김은주, 2015; 정진한 외, 2025; 홍성화, 2015)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학습자

참여·경험·성찰 중심의 교육방법과 평가방법 중 대표적인 유형들만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은 인성교육 및 평가방법 모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파일럿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였거나 '경험 가능성'이 높은 방법만을 선별하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 제시한 후 각 유형에 대한 선호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범주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의 선호 교육방법으로는 '사회봉사 실천(서비스러닝: 지역사회 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인성을 기르는 방법)'(21.9%), '토론 중심 교육(토론식 수업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방식)'(21.9%),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통해 인성 판단을 학습하는 '사례 중심 교육방법'(21.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체험 중심 교육: 역할극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갈등상황을 체험하고 해결하는 고민해 보는 방법'(14.0%), '자기성찰형 과제 및 활동기반 교육: 자기의 경험을 글이나 말로 성찰해 보는 에세이 작성이나 발표 수업'(12.4%)에 대한 선호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의 인성교육을 추상적 가치 전달이나 이해보다 실천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일 때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론 중심 강의보다는 참여·경험·성찰이 결합된 학습 형태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교육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자체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

식'(39.3%)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규교과목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23.6%) 또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도서관 주도 인성교육이 여느 전공교육 및 교양교육과 병행되어 학점인정이 가능한 정규 교과과정으로 정규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교과목이용자 개별 신청 집단교육'(20.2%)과 '이용자 개별 신청 1:1 교육'(8.4%)과 더불어 '다른 교과목을 지원하는 교육방식'(8.4%) 순으로 수요를 표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인성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 주도의 지속적이고도 정례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신뢰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을 도서관 주도형 정규 프로그램과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또한 반증한다 하겠다.

셋째, 인성교육의 제공방식에 대한 선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오프라인 대면 교육방식'(52.3%)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방식'(21.9%)과 '온라인 녹화 콘텐츠 제공'(15.7%)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방식'(10.1%) 순으로 응답이 분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은 대면을 기초로 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에서 수행되기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 전통적인 '지식 확인 중심: 시험 및 이해 내용 발표 등'의 방식보다는 인성 변화의 실제 발생 여부를 포착하는 '수행·성찰 중심: 자기성찰

에 기반한 소감, 포트폴리오를 통한 변화 서술, 동료 평가를 통한 상호 피드백'의 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성 관련 활동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평가하거나, 교수나 관찰자의 행동 관찰 및 피드백과 같은 준거기반 평가방식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인성교육의 평가가 학습자의 내적 성찰을 존중하면서도,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를 구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혼합형 평가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표 7〉 참고).

끝으로, 선호하는 홍보방법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및 학과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과 '도서관 SNS를 활용한 공지'(50.6%)를 통해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안내받기를 가장 원했다. 그 밖에 'SMS 문자서비스'(21.4%)와 '도서관 및 대학 홈페이지 공지'(18.0%)가 뒤를 이었으며, 교수, 강사 및 지인을 통한 추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였다. 즉, 대학생들은 도서관 자체 채널(홈페이지, 문자 알림, SNS)을 활용

한 직접적이고 즉시성이 높은 홍보 방식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4.6 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대학생들의 도서관 기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있어 인구학적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 인성교육 경험 유무(횟수)에 따라 인성교육 인식과 요구에 영향을 미쳤으나,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6.1 성별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대학도서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분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value 0.022). 남학생은 '인성 관련 도서 및 자료 구축 및 추천 서비스'와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안내·지원'에 대한 선

〈표 7〉 교육 평가방법 선호

문항	빈도	백분율
자기성찰 기반 평가: 교육 전후 자기 성찰 에세이나 소감문을 비교하여 스스로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	56	31.5
동료 평가 기반 평가: 동료(조원, 친구 등)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인성변화에 대해 돌아보는 방식	33	18.6
자율평가 및 체감변화: 정해진 평가보다는 스스로 느낀 변화와 주변 반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29	16.3
기준표 활용 평가: 교과목 내에서 인성과 관련된 활동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27	15.2
관찰 및 교수 평가: 봉사활동이나 팀 활동 후 교수 또는 담당자의 관찰 및 피드백을 반영한 평가 방법	23	12.9
행동 기반 시뮬레이션 평가: 인성 관련 상황에 대한 모의 시나리오 또는 역할극을 통해 실제 태도와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	9	5.1
기타: 필요 없음	1	0.6
계	178	100

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학생은 ‘도서관 주관 교육 프로그램(특강이나 강연 개최)’과 ‘독서를 통한 명상 및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남학생은 도서관의 인프라 확충과 대외 연계 활동(봉사활동 및 사회참여)에, 여학생은 도서관이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심리적 지원 기능에 더 큰 기대를 보였다(〈표 8〉 참고).

4.6.2 학년별

첫째, ‘학년’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수행할 때의 효과(이점)’에 대한 인식 분포가 유의하게 달랐다($p < .001$). 저학년(1~2학년)일수록,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운영할 경우, 인성교육의 학습 및 자료 연계에 이점을 두는 반면, 고학년(3~4학년)은 높은 접근성으로 인한 참여 편의와 도서관 프로그램의 매력도에 장점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참여의 효용성(편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고려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년’에 따라 ‘실감형 체험(XR)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p < .001$).

저학년일수록 기술사용으로 인한 잠재효과와 체험성(간접체험을 통한 공감 능력 증대, 실제 상황을 생생한 경험)을, 고학년일수록 인성교육의 본질(교육의 본질 훼손 우려)과 기술사용의 형평성 그리고 교육의 효과성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학년’에 따라 ‘인성교육 평가방법 선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1학년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자기성찰 기반, 동료평가 기반)을 중시하며 2학년은 ‘자기성찰 기반 평가’와 함께 ‘기준표 활용 평가’와 ‘자율평가 및 체감변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3학년은 ‘자기성찰 기반 평가’와 ‘기준표 활용 평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4학년은 ‘자기성찰 기반 평가’가 가장 높았고, ‘동료평가 기반 평가’에 대한 선호도 높았다.

넷째, ‘학년’에 따른 인성교육 ‘홍보방법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35$). 1학년은 ‘도서관 및 대학 홈페이지’(26.3%)와 ‘도서관 SNS 게시물’(26.3%)을, 2학년은 ‘도서관 및 학과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 제공’(31.3%)과 ‘도서관 SNS 게시물’(31.3%)을, 3학년은 ‘도서관 및 학과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 제공’(33.8%)과

〈표 8〉 ‘성별’과 기대하는 도서관 인성교육 프로그램(수요)

	인성 관련 도서 및 자료 구축 및 추천 서비스	인성교육 주제의 도서 토론 모임 운영	다양한 인성교육 특강 및 강연 개최	독서를 통한 명상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독서를 통한 자기성찰을 돕는 프로그램 제공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	전체	X(ρ)
남	13 23.21%	4 7.14%	10 17.86%	6 10.71%	12 21.43%	6 10.71%	5 8.93%	56 100%	14.81 (0.022*)
여	10 8.20%	11 9.02%	38 31.15%	22 18.03%	16 13.11%	20 16.39%	5 4.10%	122 100%	
전체	23 12.92%	15 8.43%	48 26.97%	28 15.73%	28 15.73%	26 14.61%	10 5.62%	178 100%	

'SMS 문자 서비스'(24.3%)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4학년은 '도서관 및 학과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 제공'(36.5%)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4.6.3 전공계열별

첫째, '전공계열'에 따라 '실감형 체험(XR)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검정, $p < .001$). 자연 및 공학계열은 실감체험 기술이 제공하는 교육적 효용(현실감, 공감 증진)에 대해 기대감을 표한 반면에, 사회계열은 기술 중심의 접근이 인성교육의 본질과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인문계열은 흥미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가적 인식이 관찰되었다.

둘째, '전공계열'에 따라 '기존 대학도서관 서비스와 인성교육과의 관련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검정, $p = .050$). 인문계열은 정보윤리와 독서기반 교양활동을 인성교육의 핵심 접점으로 보았다. 사회계열은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자연 및 공학계열은 정보의 윤리적 사용, 자기계발 및 인성 관련 도서 추천 등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자연계열은 도서관에서의 독서토론 모임은 인성교육과 무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6.4 교육경험 유무(횟수)별

첫째, '인성교육 경험 횟수'에 따라 '교육방법 선호도'의 분포가 유의하게 달랐다(χ^2 검정, $p = .034$). 경험이 없는 집단은 '사회봉사 실천 교육'(26.9%)을, 1~2회 정도 경험을 가진 응답

자들은 '토론 중심 교육방법'(29.3%)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5회 이상 다경험 집단은 '사례 중심 교육'(33.3%)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꼽았다. 즉,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추상적인 가치 전달보다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별 학습의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인성교육 경험 횟수'에 따라 '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선호도'의 분포가 유의하게 달랐다(χ^2 검정, $p = .018$).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정규 프로그램 제공 방법'(44.1%)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경험이 적은 집단(1~2회) 역시 '도서관 자체 정규 프로그램 제공 교육'(36.2%)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그다음으로 '이용자 개별 신청 집단 교육'(24.1%)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경험이 많은 집단(5회 이상)은 '정규 교과목으로 제공'(58.3%)하는 것의 선호가 현저히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인성교육을 대학 차원의 정규 교과목으로 제도화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경험이 적을수록 도서관 주도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정리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사회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기초 교양교육, 가치관 및 삶을 지혜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여겨 인지적 능

력개발보다 정서적·가치지향적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91%가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이수받는 것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필요성의 근거로는 소통 및 협업 역량 강화와 함께 전인교육에 대한 대학의 책무, 그리고 대학 시기가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생들은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의 기준을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 공감 능력과 배려와 친절이라는 덕목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즉, 인성을 존중·예절·공감·배려 등 관계지향적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12가지 핵심 가치 덕목에 대한 중요도에서도 존중·책임·예절이라는 관계지향적 가치를, 인성교육 내용에서 요구하는 덕목 또한 존중·예절·협동이라는 관계적 덕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대학도서관 주도의 인성교육 관련 서비스의 미경험 비율이 86.5%로 매우 높았다. 이 중 일부 경험자는 인문·교양 특강, 독서토론, 공감·소통 워크숍, 독서기반 성찰 글쓰기 등에 참여한 바 있었다. 도서관 중심의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의 강점으로 높은 접근성과 전문자료 활용,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 용이성을 꼽았다. 또한, 기존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인성교육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정보윤리(표절 방지) 교육, 독서 프로그램, 상황별 자료 제공, 독서토론, 서비스러닝 순으로 인식되어 이를 매개로 인성교육을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도서관을 통해 기대하는 인성교육 관련 서비스로는 독서활동 기반 교육, 특강 및 강연, 정보윤리 교육으로 요약되었다.

다섯째,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서비스러닝을 통한 사회참여(봉사)활동, 토론중심 교육, 사례 중심 교육으로 나타났고, 교육 제공방식은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교육 운영방식은 도서관 내의 정규 프로그램과 정규 교과목화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으며, 학습 평가방법은 자기성찰, 동료평가, 관찰/체크리스트를 결합한 수행·성찰 중심 평가가 선호되었다. 선호하는 알림 또는 홍보 방식으로는 도서관 및 학과 게시판, 도서관 SNS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하고 있었다.

끝으로, 교차분석 결과, 성별, 학년, 전공계열, 인성교육 경험 횟수에 따라 선호하는 바가 유의하게 달랐는데, 남학생은 인성 관련 자료 구축 및 사회연계 및 참여봉사에, 여학생은 도서관 주관 프로그램 및 심리 지원을 인성교육에서 받길 원했다. 학년별로, 도서관의 인성교육 주도에 대해 저학년일수록 학습 및 자료연계가 용이하다는 점에 고학년일수록 높은 접근성과 편리함에 도서관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학습 후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저학년일수록 자기성찰 기반 평가를 고학년일수록 기준표 활용 및 자율평가와 체감변화를 선호했다. 홍보채널 선호도에서는 저학년일수록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서, 고학년일수록 대학 및 도서관 오프라인 게시판 및 SMS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계열별 차이에서는 실감형 기술 활용에 대해서 자연·공학 계열은 현실감 있는 경험과 공감 증대 등 교육적 효용기대가 높았고, 사회계열은 인성교육 본질 훼손 우려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인문계열은 흥미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가적 인식이

었다. 기존 도서관 서비스 중 인성교육 관련성 인식도 유의했는데, 사회계열 학생은 정보윤리 교육 및 사회연계(서비스러닝) 서비스를, 자연·공학 계열은 정보윤리와 전통적인 자료구비 및 독서활동에, 자연계열은 독서토론을 인성교육과 전혀 연계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성교육 경험 유무에서 무경험 내지는 경험이 적을수록 토론 및 서비스러닝 중심의 교육방법을 경험이 많을수록 구체적 상황과 사례에 기반한 학습방법을 선호했다. 운영방식에서도 무경험 내지는 저경험자는 도서관 자체 정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다경험은 정규 교과목화 선호가 현저히 높았다. 경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도적·공식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제언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대학생의 91%가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대학도서관을 인성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 기관으로 인식하며, 도서관 주도의 지속적이고도 정례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신뢰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중심의 인성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미경험이 86.5%나 되고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홍보 부족' 혹은 '인지 부족'이라는 점은 도서관 교육서비스 및 운영전략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대학생들은 도서관을 캠퍼스 내 편리성과 접근성을 갖춘 인프라로 필요한 전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비해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들

의 인식과 선호에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대학도서관 내 사서들은 인성교육 제공에 대해 인식의 전환과 주도적 자각과 함께 전략적 홍보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의 재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사서는 도서관 입장에서 대학 인성교육 지원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책임 인식'과 이를 위한 '기본 서비스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은 수집된 장서를 기반으로 주제(인성 및 교양) 큐레이션 서비스와 독자 상담서비스, 독서(토론) 프로그램, 정보의 윤리적 사용 교육(인용 표기 및 서지 관리), 유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 학생의 수요와 선호는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 운영의 중심으로 기능할만한 충분한 인식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이전에 수행해 왔던 다양한 특강 및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교육서비스를 '인성교육' 서비스로 보다 고도화(주제화),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구조사에서 나온 핵심가치와 덕목 즉, '정보윤리적 사용', '상호존중의 다문화 교육', '독서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도서관 활동으로 연결시켜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대학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도서관 자체적으로 정례화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되, 교육방법은

참여·경험·성찰이 결합된 학습 형태를 제공하며, 제공방식은 대면을 기초로 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을 고려하며,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내적 성찰을 존중하면서도,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를 구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혼합형 평가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도서관 주도 인성교육이 전공 및 교양교육과 병행되어 학점인정이 가능한 정규 교과과정으로 정규화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요구분석을 통한 결과의 활용은 인성교육을 제공할 때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세분화(segmentation)'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별, 학년, 전공, 인성교육 경험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및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홍보방법에서의 선호의 차이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심분 발휘하여 상황별, 학년별, 경험 정도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듈화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홍보내용과 방법의 간구가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단순 공지 중심의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대상의 세분화에 기초한 메시지 전략과 다채널 혹은 다방면의 홍보방법이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학년, 전공(계열), 국제학생 여부에 따른 맞춤형 안내를 설계하고, 학교 포털, LMS, 학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 공식 플랫폼과 연계하고 표준화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홍보성과에 대해 피드백 절차를 도입하여 참여율 효과를 검증하고 환류함으로써, 도서관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

을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수요자 즉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전국의 대학생이 아니라, A지역에 한정되어 졌다는 점과 더불어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이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도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일종의 파일럿 기초연구로 대학도서관을 인성교육의 실행 거점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의 교육내용-방법-운영-평가-홍보 전 주기 수요를 한 번에 조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 이를 통해 도서관이 그동안 수행해 온 핵심 교육 서비스들(예,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 정보윤리교육, 독서 및 큐레이션)과 인성교육의 관계·협업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 인성교육을 위한 세분화 전략수립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보다 확대하여 각 인구학적 특성(예, 지역, 학교 특성, 도서관 규모 등)을 모두 포괄하되 그 특성 따른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요구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와 선호를 탐색적으로 파악한 데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범주(내용, 방법, 운영, 평가, 홍보)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다문항 척도(질의를)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수요조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2008). 인성교육. 경기: 양서원.
- 국립국어원 (2025).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https://stdict.korean.go.kr/>
- 김경연 (2017). 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대학생, 졸업생, 인사담당자의 인식차이 및 교육요구도 분석: 공과중심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38(2), 82-108.
<http://dx.doi.org/10.18612/cnujes.2017.38.2.81>
- 김광식 (2020). 인성교육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서울대학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를 중심으로. *교양기초교육연구*, 1(2), 25-50.
<http://dx.doi.org/10.37998/LE.2020.1.2.2>
- 김대기 (2018). 인문학제적 인성교양교육으로서 역사읽기. *인문과학연구*, 56, 167-186.
<http://dx.doi.org/10.33252/sih.2018.03.56.167>
- 김선주 (2016). 대학생 인성수준 및 요구도에 따른 인성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2), 1-19.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2.1>
- 김수현 (2018). 인성 역량 중심의 대학 독서교육(국내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 김용수 (2012). 독서치료를 활용한 사회통합인성프로그램이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1-23.
- 김효선 (2025). 대학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연구. *미래교육연구*, 15(1), 55-74.
<http://dx.doi.org/10.26734/JFE.2025.15.01.03>
- 도유미 (2015). 인문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디지털 도서관*, 80, 40-57.
- 박성미, 허승희 (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유아교육*, 21(3), 35-47.
- 박현희 (2019).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 읽기 강좌의 운영 특성과 효과: 서울대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3(5), 11-37.
- 성명희, 김은주 (2015).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과 요구도 분석. *윤리교육연구*, (38), 177-202. <http://dx.doi.org/10.18850/JEES.2015.38.07>
- 인순태 (2017).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 논어(論語) 세미나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한문교육논집*, 48, 95-120. <http://dx.doi.org/10.17963/ccek.2017..48.95>
- 안지영, 연지영 (2021). 인성교육을 위한 대학생들의 비교과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문사회* 21, 12(1), 1331-1345.
- 윤유라, 이은주 (2020).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토론활동의 설계: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325-350.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325>
- 윤정화 (2024).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 최승자 시 읽기: 대학의 <시 읽기>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

- 교육연구, 18(2), 127-136.
- 이경자, 유정민, 정연재, 주소영 (2020). 대학생 셀프 리더십 교과목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도 분석: I 대학의 셀프리더십 진단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4), 37-52.
- 이경진 (2022). 대학 교양교육 내용에 대한 단과대별 학생 요구 분석: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3(2), 27-54.
- 이국환 (2017).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읽기와 독서교육. *동남어문논집*, 1(43), 199-231.
<http://dx.doi.org/10.21654/djkl.2017.43.1.199>
- 이금만 (2011). 인격 재형성을 위한 신학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7, 125-154.
<https://doi.org/10.17968/jcek.2011..27.005>
- 이기용, 조용태 (2016). 대학생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 *인성교육연구*, 1(2), 1-18. <http://dx.doi.org/10.46227/JCER.1.2.1>
- 이만수 (2016). 인성교육을 위한 창의적 독서활동에 관한 연구. *디지털 도서관*, 81, 3-15.
- 이성숙, 구정화 (2024).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도서관 역할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신앙과 학문*, 29(1), 5-43. <http://dx.doi.org/10.30806/fs.29.1.202403.5>
- 이원봉 (2017).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고전독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고와표현*, 10(1), 115-142.
<http://dx.doi.org/10.19042/kstc.2017.10.1.115>
- 이종현 (2016). 대학 신입생들의 인성교육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10(2), 219-250.
- 인성진흥교육법. 법률 제13004호.
- 임광명, 박덕병, 이신영 (2016).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요구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3(4), 375-385.
<http://dx.doi.org/10.12653/jecd.2016.23.4.0375>
- 전중윤 (2015). 독서공동체.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의 장(場): 폴 리콕르 철학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72, 1-22.
- 정진한, 이지욱, 서지우 (2025). 대학도서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2), 275-295. <https://doi.org/10.16981/kliss.56.2.202506.275>
- 정창우 (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세종: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 조난심 (2004).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미숙 (2015). 효과적 대학 독서 교육 방안 연구. *동남어문논집*, 1(40), 299-326.
- 조혜경 (2017).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명저 읽기와 서평 쓰기 제안: 대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1), 677-698.
- 지현아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인성교육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39-61.
- 지희진 (2013).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5), 433-466.
- 현주 (2014).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연구.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홍성화 (2015).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개선방안 탐색: J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5(3), 107-12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e-Kyung (2017). A research on reading great books and book review writing in connection of curriculum and extra-curriculum progra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677-698.
- Ahn, Jiyoung & Yeon, Jeeyoung (2021).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necessity of non-curricular activities for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1331-1345.
- An, Soon-tae (2017). A study on the classical Chinese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the seminar class model. Journal of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Korea, 48, 95-120. <http://dx.doi.org/10.17963/ccek.2017..48.95>
-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Law No. 13004.
- Cho, Nan Sim (2004). A Foundational Study for Developing a Character Evaluation Scal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Chun, Chongyoon (2015). Communauté de lecture. espace pratique de l'éducation du caractère pour édifier l'identité narrative: a la lumière de la philosophie de Paul Ricoeur.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72, 1-22.
- Do, Yu Mi (2015). Theoretical study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humanities reading. Digital library, 80, 40-57.
- Hong, Sung-hwa (2015).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and search for improvement ideas: focusing on the case of J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5(3), 107-128.
- Hyun, Joo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 Level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on Ways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Character Assessment Tool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Ji, Hee Jin (2013). An inquiry into the awareness on the liberal and character edu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5), 433-466.
- Ji, Hyun-A (2017). A study for direc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according

-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39-61.
- Jo, MiSook (2015). A study on effective reading education in university: focusing university libraries and reading curriculum, Student Book Clubs.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1(40), 299-326.
- Jung, Chang Woo (2013). Current Status of Character Education by School Level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 Jung, Jin-Han, Lee, Ji-Wook, & Seo, Jiwoo (2025).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n digital literacy curriculum for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2), 275-295. <https://doi.org/10.16981/kliss.56.2.202506.275>
- Kang, S., Park, E.-S., Kim, G., Song, S., & Jung, Y. (2008). *Character Education*. Gyeonggi: Yangseowon.
- Kim, Dae-Gi (2018). Reading history as the character and liberal education in humanities. *Studies in Humanities*, 56, 167-186. <http://dx.doi.org/10.33252/sih.2018.03.56.167>
- Kim, Hyosun (2025). Research on academic trends in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5(1), 55-74. <http://dx.doi.org/10.26734/JFE.2025.15.01.03>
- Kim, Kwangsik (2020). Reading of Thus spoke Zarathustra as a moral character education: focu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s "Reading Seminar-Ask the Classics for Directions." *Bildung*, 1(2), 25-50. <http://dx.doi.org/10.37998/LE.2020.1.2.2>
- Kim, Kyeong Eon (2017). Analysis of perceptions and educational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human resource manager on student's core competencies: focused on a case of K university. *CNU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38(2), 82-108. <http://dx.doi.org/10.18612/cnujes.2017.38.2.81>
- Kim, SeonJu (2016).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 according to character levels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3(2), 1-19.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2.1>
- Kim, Soo Hyun (2018). *Reading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Character Competency*.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Kim, Yong Soo (2012). The effects of reading therapy-based social integration personality program o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sense of dista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1), 1-23.
- Lee Wonbong (2017).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lassical reading program in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Ratio et Oratio*, 10(1), 115-142.

- <http://dx.doi.org/10.19042/kstc.2017.10.1.115>
- Lee, Gemman (2011). A study on reshaping theological education for person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7, 125-154. <https://doi.org/10.17968/jcek.2011..27.005>
- Lee, JongHyun (2016). An inquiry into university freshmen's experiences and their awareness on human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0(2), 219-250.
- Lee, Ki-Yong & Cho, Yong-Tae (2016). Needs analysis for personality education orient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 Research*, 1(2), 1-18. <http://dx.doi.org/10.46227/JCER.1.2.1>
- Lee, Kook-Hwan (2017). Classics reading and reading education as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43), 199-231. <http://dx.doi.org/10.21654/djkl.2017.43.1.199>
- Lee, Kyeongja, Yoo, Jungmin, Jeong, Yeon Jae, & Joo, Soyoung (2020). An analysis of the learners' needs to develop self-leadership curricula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self-leadership analysis of I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4), 37-52.
- Lee, Kyungjin (2022). An analysis of student needs for liberal arts education content by college: focusing on the case of A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2), 27-54.
- Lee, Man-soo (2016). A study on the creative reading activity for personality education. *Digital Library*, 81, 3-15.
- Lee, Sung Sook & Koo, Joung Hwa (2024).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Faith & Scholarship*, 29(1), 5-43. <http://dx.doi.org/10.30806/fs.29.1.202403.5>
- Lim, Kwang Myeong, Park, Duk Byeong, & Lee, Shin Youn (2016).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3(4), 375-385. <http://dx.doi.org/10.12653/jecd.2016.23.4.0375>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5). *Standard Korean Dictionary*.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
- Park, Hyun-hee (2019). Principals and effects of a classics-reading course that aims to cultivate character of students: focused on the 'reat Books Reading Semina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5), 11-37.
- Park, Sung-Mi & Huh, Sung Hee (2012).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35-47.
- Seong, Myung Hee & Kim, Eunjo (2015).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personality development level and their demand for

personality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8), 177-202.

<http://dx.doi.org/10.18850/JEES.2015.38.07>

Youn, You-Ra & Lee, Eun-Ju (2020). Design of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using recommended book list: the case of 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325-350.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325>

Yun, JeongHwa (2024). Reading Choi Seung-ja's poetry a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university's <Reading poetr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8(2), 127-136.